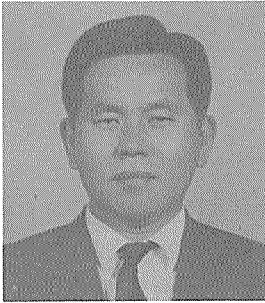


「協議會」役割에 거는 期待



朴 在 麟
본회 · 정보산업부장

우리 電子工業振興會는 지난 2月 定期總會를 통하여 業種別, 品目別, 機能別 協議會 體制를 새로 導入하여 電子·情報産業의 振興事業을 더 한층 強化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月에는 “半導體産業 協議會”와 컴퓨터 特許 協議會”를 發足시켰고 4月에 들어와서도 “通信産業 協議會” 創立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가전산업 컴퓨터産業, 部品産業, 工場自動化産業 등의 協議會가 잇달아 결성되었다.

이미 전부터 운영되어 온 “通商 協議會”까지

包含하면 이미 6個 協議會가 構成, 運營中運에 있고 또 2個 協議會가 結成段階에 와 있어 今年內로는 最小限 10個 協議會가 결성되어 活動을 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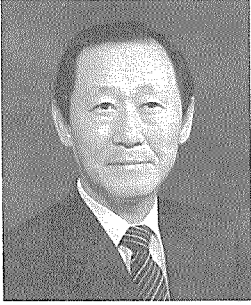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協議會 活動을 보면 가장 먼저 構成되어 具滋學 本會 會長이 겸임해 이끌어 가고 있는 “通商 協議會”의 경우 매년 따로 基金을 造成하여 現地 辯護士 및 資問會社의 雇傭, 民間 通商會談 開催 등을 통하여 輸入規制 事前豫防 및 通商摩擦로 인한 影響을 最小化하는 등의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協議會들도 이제 構成된지 1個月도 못되었지만 “半導體産業 協議會”의 경우 무려 54個社가 參與해 金光浩 三星電子(株) 代表理事를 初代 會長으로 뽑아 4個 分科委員會를 構成하고 연구개발, 通商問題, 裝備 및 素材 國產化 등의 事業을 펴 나아가고 있고 “通信産業 協議會”는 29個社가 參與해 初代 會長으로 大宇通信(株) 朴成圭 代表理事를 뽑은 후 情報通信産業의 國內 需要造成 政策과 輸出産業化 政策의 연계를 위한 政策 建議活動과 輸出 有望品目의 核心技術 및 部品開發 促進 등의 事業을 중점적으로 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컴퓨터 特許 協議會”도 三星電子(株)의 金榮洙 代表를 會長으로 選任하고 對外 特許問題에 있어 業界間 相互 情報의 交換, 先行特許 技術調査 등의 事業으로 이미 상당 금액의 特許料 支拂을 輕減시켰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국제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特許問題의 重要性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하여 국제 특허분쟁 모의 재판 시연회를 갖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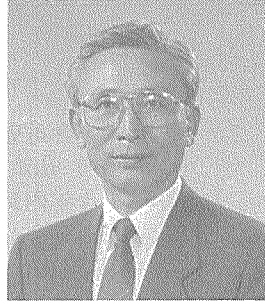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아직 協議會는 그 인식도 충분히 되지 못한 초기 단계이긴 하나 일단 外形의 으로 꽤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협의회가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데는 會員社들이나 本會의 노력도 컸지만 政府에서도 그 필요성을 먼저 認識하고 積極的인 後援의 힘이 컸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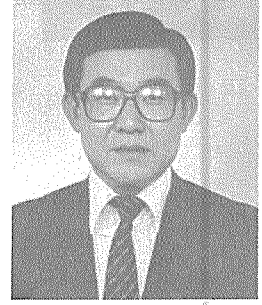
李氣盛 商工部 電子電機工業局長은 다른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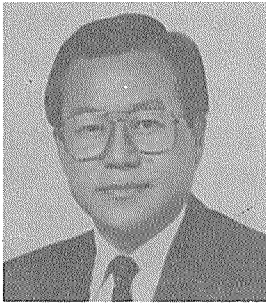
具 滋 學
통상협회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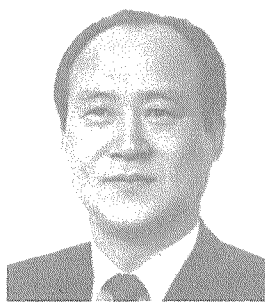
金 光 浩
반도체산업협회의 회장



朴 成 圭
통신산업협회의 회장



金 榮 洙
컴퓨터특허협회의 회장



李 憲 祖
가전산업협회의 회장



金 鍾 吉
컴퓨터산업협회의 회장



에 앞서協議會때마다 參席하여 “이제 業界가 總意를 모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政策 提案활동을 펴주어야 정부도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強調하고 바로 協議會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해 왔다.

協議會란 利害를 같이 하는 業體끼리 모임을 만들어 그 業界가 當面한 問題에 대해 政策 建議을 해서 改善도 하고 相互 利益이 되는 事業은 協力이나 共同으로 추진하는 一種의 協會라

고 볼 수 있는데 다만 業種別, 品目別로 수많은 協會를 亂立시켜 놓으면 會員社들의 會費 負擔만 過重해지고 그 協會도 零細해서 無氣力해질 뿐 아니라 自己主張만 펴 政策수렴에도 혼란만을 超來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振興會를 母體로 하되 그 活動을 準獨立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制度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電子工業은 그 規模가 廣大해졌고 範圍도 多樣하면서도 廣範圍해 잘못하면 振興會가 會員社들의 구석 구석의 일을 하나 하나 살펴 나아가기 어려운 時點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業種別, 品目別, 協議會 中心으로 하도록 하고 그것을 모아 놓으면 振興會 事業이 되는 一種의 연합회 성격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또 聯合會와 다른 점은 電子工業 共同의 事業, 예컨대 調査, 國際, 會員管理, 展示, 總務 등의 機能은 그대로 살려 나아가면서 산업별 진흥사업만 연합회 성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振興會는 이미 지난 2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현인원과 예산은 늘리지 않고 협의회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에서 인원을 뽑아 家電産業部, 情報産業部, 部品産業部 등 3個部 6個課를新設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기존 조직은 사람이 빠져 業務가 倍加되었고 新設 組織은 協議會를 통해 새로 事業을 造成해 나아가도록 하였다.

協議會의 구성과 사업 및 추진방법 등은 각 協議會의 規程으로 정해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協議會는 業種別, 品目別, 機能別로 구성 하되 반드시 希望하는 業體들끼리 한다는 것이 特徵이며 協議會가 할 수 있는 일은 政策建設, 調査, 國際, 친선도모, 이익사업 공동추진 등 진흥회나 다른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업종이나 품目に 대해서만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추진해 나갈 사업은 그 협의회에서 선정하고 추진도 그 협의회의 회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아가도록 진흥회는 사무국 간사로서의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도 물론 그 협의회에서 조달하고 집행한 후 결산에 대한 승인도 그 협의회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회는 아래의 몇가지 측면에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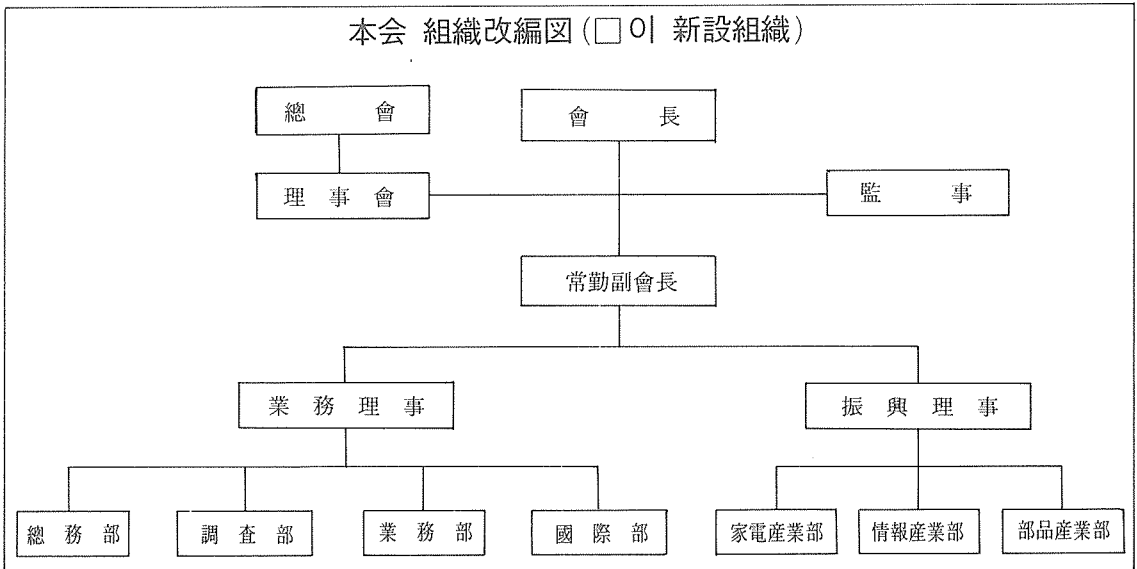
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하루 빨리 활성화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첫째, 협의회는 그 제도 자체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협의회가 없다면 업종별, 품목별로 많은 회원사들의 현안들을 수렴할 수도 없고 개선해 나아가기란 더 한층 어려울 것이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해도 그것을 타개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도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협의회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인원 1~2명의 별도 협회가 난립되면 협회가 무기력해짐은 차치하고 회원사들의 회비부담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흥회라는 튼튼한 母體가 있고 여기에 업종별, 품목별 협의회가 있어 각기 자기 몫을 한다면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우리는 특히 과거 '80年代 초에 많은 협회들이 他意에 의해 非民主的으로 통폐합되는 不幸한 과거를 갖고 있어 이 협의회가 무실한 협회





의 난립을 막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우리가 도입한 협의회는 獨創的인 것이고 그것이 自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협회들도 그러하거나 선진국인 미국, 일본이나 또 競爭國인 台灣의 경우도 協會의 樣相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한가지는 不實한 協會들이 亂立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법률로 정해 협회가 난립되지 않아 규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협회 요원들이 관료화되고 그 운용이 경직되어 주인의식과 존재가치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협의회 도입이 필요했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獨特하게 發展시켜 나아가자는 것이다.

끝으로 協議會가 아무리 그 뜻이 좋다해도 지금은 始作에 不過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소기의 성과를 가지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問題라고 본다.

그것은 첫째, 協議會가 會員社들을 위한 會員社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會員社들이 主人의 의식을 새롭게 갖고 각기 자기에 주어진 권한이나 의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民主社會의 基本的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의회가 많은 일을 해서 큰 성과가 있다해도 그것은 곧 회원사들의 것이 되고 협의회가 부실해서 제기능을 못한다 해도 그 책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회원사들 때문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돕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회 의의가 그 업계 총의의 뜻이라는 점에서 협의회 자체를 존중해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협의회가 합법적으로 하는 共同事業에 대해 그것이 個別 業體 單位의 사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마지막으로 企業이나 協議會가 다 같이 그 속성이 단시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깨우쳐 주는 지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요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 보다 성실하게 협의회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사무국의 요원은 기본적으로 협의회 의 고용원이라는 자세를 갖어야 하며 피고용자와 자주 접촉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협의회 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불성실해지기 쉬워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자주 접촉하고 스스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人類 社會는 待望의 21世紀 문턱에 와서 빠른 속도로 이제까지의 工業化 社會가 情報化 社會로 變革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產業의 興件은 아무리 둘러 보아도 다른 나라 보다 比較 優位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人力 資源 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宿命的으로 電子, 情報產業의 振興이 至上 最大의 課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의 現實은 國內外的으로 너무 많은 試鍊속에 놓여있는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90년대 나아가 2000년대에 선진 전자, 정보산업국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산업진흥회 구심체인 우리 전자공업진흥회가 협의회체제를 활성화시켜 각분야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합쳐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確信한다.